

2018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

〈회의개요〉

- ◆ 일 시 : 2018. 8. 23.(목) 14:00~
- ◆ 장 소 :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1동) 5층 회의실
- ◆ 참 석 :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위원
- ◆ 안 건 : 30작품(조각 22, 부조 2, 미디어 1, 회화 5)
- ◆ 결 과 : 승인 9작품, 부결 21작품

□ 위원 발언 내용

위원장 : 조례에 의거해서 위원별 개별채점방식으로 진행되며 20~30분내 시간동안 자료검토 및 토론 후 채점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심사방식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거나 다른 방식을 제시하실 위원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잠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결사유를 신중하게 적어야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짚고 넘어갈 때 부결사유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1-1번 작품 '행복하여라'입니다.
- 사전의견으로 무난하지만 작품가 과다, 예술성 부족이 있습니다.
- 설치위치는 적절한가요?
- 사전의견으로 표현이 구태의연하고 현대적이지 못함에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 너무 전통적인 가치 가족개념에만 기대고 있다. 이 말도 맘에 듭니다. 가족개념에서 조금 더 발전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어요.

- 우리가 장소성이라던가 환경을 따질 때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요소들이 등장하게 되니까요, 가격은 얼마나 되는지.
- 가격이 이억입니다.
- 너무 심하다.
- 꽃은 나중에 심는 건가요?
- 어쨌면 이게 지금까지는 그냥 통용될 수 있는 무난한 작품이었는데, 예술이라는데 이렇게 이십년 가까이 똑같은 것만 하는 것이, 동시대적 감수성을 반영해야 되지 않나요.
- 경제선에 있는 작품 같은거죠. 이분이 평소작품도 거의 유사한 경향인거 같은데. 그러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 1-2번 작품 '트립'입니다.
- 이것도 앞의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여행에 대한 일차적 해석, 여행을 갔다 온건지 쇼핑을 갔다 온건지.
- 장소성하고 맥락상 어떤 관계가 있나요.
- 와이어 프레임 스타일이 이분만의 개성은 아니죠?
- 너무 많죠.
- 지금 전체적으로 너무 평이하다. 예술적 감흥이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 사전검토의견 한번 검토해 보시면 될 것 같구요.

- 1-3번 작품 '다면적 사고'입니다.
- 송파구 위례택지개발지구에 타워 앞에 들어가는 작품이구요. 지금보시면 구석에 이렇게 근데 아무래도 설치위치가 그렇게 선택의 여지는 많지 않았던 거죠.
- 이런 작품이 너무 많지 않아요?
- 오랫동안 많이 있었던 방식이구요
- 과연 이게 예술성이 있는 건가? 한동안 유행에서 흘러갔으면 그 다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는게 정석이라고 생각해요.

○○○ 조형감각이 상투적이고 식상함, 적절하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 넘어가겠습니다.

○○○ 1-4번 작품 '푸른바다에 내리는 비'입니다.
○○○ 이것도 의견이 나뉘지 않아요?
○○○ 유지보수안 부족, 상투적 조형이라는 말씀도 있고, 장식적인 형태, 작품가과다, 개념 모호하다는 사전검토의견이 있습니다.
○○○ 환풍기 가림막으로는 무리가 없다 라는 의견도 있긴 있는데.
○○○ 가격이 얼마인가요?
○○○ 사억삼천오백입니다.
○○○ 작품이 굉장히 좀 비싸죠.
○○○ 넘어 가겠습니다.

○○○ 1-5번 작품 '봄 자연의 생성'입니다.
○○○ 콜라보를 주로 하시나요.
○○○ 약간 부자연스러워 보이는거 같아요. 돌과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느낌이에요
○○○ 이걸 보면 뭔가 아이디어 스케치나 작품 자체만 봐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과연 건물과의 조화 이런 걸 떠나서 감동을 주나, 봄 자연의 생성인가? 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 조형성 부족이라던지 예술성 부족이라는 의견이 많으셨습니다.
○○○ 매체가 잘못된 것, 회화나 벽화나 이런 걸 해야 하는데 억지로 조각형식을 가져오는 듯합니다.
○○○ 가격도 이억오천입니다.
○○○ 정면에 파란바탕에 꽃그림이 있는 평면화가의 작품을 잘라서 집어넣고 하는 형식입니다.
○○○ 콜라보던 아니던 그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미감이라든가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게 문제인거 같고요.

- 콜라보라는데 그냥 기계적인 콜라보인 것 같고요. 시너지가 없습니다.
- 조형이 구태의연하고 생성의 새로운 맛이 없어요.
- 2번 작품 '항해'입니다. 조각작품이고요.
- 근데 평소 작품경향하고는 조금 괴리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 어찌면 평소 하시던 작업에 비해서는 오히려 무난한, 좋다는게 아니라 무난한데.
- 움푹 파진 부분에 물이랑 쓰레기나 이렇게 쌓이지 않을까요.
- 물 새는 데가 있지 않을까요.
- 지금 자료로는 모르겠어요.
- 건물과 너무 가까운 것 같아요.
- 건물이 좀 엄청 인위적인 것 같아요.
- 그 새하고, 배하고 결합시킨 이미지를 만들고 그 안에 상투적인 면따기들이 정말 새로움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깊이 들어가서 연구를 했다면 모를까 여기서 그냥 어디에나 나와 있는 것들의 하나를 가져온 듯합니다.
- 아직까지는 한국사회 공공미술에서, 배가 그것도 이렇게 마구 컷팅되어 있는 배에 대한 우리의 트라우마가 있고,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전혀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시선적으로 아름답지 않게, 옆에서 보면 괜찮게 컷팅되어 보이지만 위에서 봤을 때는 별로 그렇지 않을까요.
- 좌대도 너무 오버스러워 보여요.
- 노아의 방주가 걸려있는 것 같은 그런 개념일거 같아요. 붉은 새 성령하고 방주하고 결합시킨 이미지인데 그 종교성을 빼고 말한거 같아요.
- 조형물이 요즘에 보니까 크기를 너무 과도하게 하는 것도 같아요.
- 배치도 상으로는 여기 외에는 작품 놓을 곳이 없어 보입니다.

- 조형상으로 봤을 때 평이하고 설치위치도 적절하지 못해요.
- 이 위치가 옆건물과 비교한 도면이 있거든요. 여기가 많이 떨어져있어요. 이 건물에서는 여기밖에 없을거 같아요.
- 조화롭지 못해 보입니다.
- 철이 용접한거라 좀 지나면 용접부위가 다 부식되버리니까.
- 스텐레스 스틸이기 때문에 용접부위에 녹 부식은 없지요.
- 문제가 있는 작품이에요. 넘어갈까요?
-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3번 작품 '행복을 띄우다'입니다.
- 작품가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 무난하다고 생각합니다.
- 나중에 색깔이 변하지 않나요
- 폴리카보네이트는 분명히 색깔이 변합니다.
- 파스텔톤이 황변이 될거라서.
- 전통 조각방식이 아닌 드로잉 평면적인 표현이잖아요. 새로운데, 주변 환경이 조금 지나면 산만해질 것 같고, 주변환경이 깨끗하고 단순하면 이게 평면적인 표현들이 돋보일거 같습니다.
- 다른 작품에 비해서 관촬계 본 이유는 오히려 어느 면에서 보면 대상이 확실히 보이고 어느 면에서는 안보이고 그런 것들이 유기적이어서 이런 점이 장점일 수 있겠다는 생각도 했어요, 너무 흥물스러운 요소들이 자기 자랑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찾아보는 맛은 있겠다 싶습니다.
- 우리나라 어디에도 작품을 돋보이게 할 공간이 없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할 수 있는 안에서는.
- 어쨌건 예술성 면에서는 문제가 없단 말씀이시죠.
- 의견이 갈리니 각자 판단하시죠.

- 4번 '천상의 아침'입니다. 가격은 일억사백사십만원이구요.

- 주제라든지 표현은 더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거 같구요.
- 젊은 작가인가요?
- 신진작가인거 같아요.
- R E 이니셜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 순록을 영어 알파벳으로 일차원적입니다.
- 이분은 보니까 회화같은 데 많이 참여를 하셨네요.
- 그러면 잘 맞을거 같아요.
- 참 어려운게 절대적으로 보느냐 상대적으로 보느냐에서 상대적으로 보면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은.
- 그냥 재미있는 느낌으로 보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요, 초반에 딱 봤을 때 찾아봐야겠네 하는 느낌입니다.
- 이 분은 이런 작품을 계속 해왔는데요.
- 주변과 같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5번 작품 '여의도 오리가족'입니다.
- 이 안에 들어가서 설 수 있는 작품이고요
- 제 기억으로는 그전에 위원님 말씀이 여러 마리가 있으면 훨씬 낫다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 작품가가 이억오천사백입니다.
- 약속장소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 오리를 주제로 삼은 이유가 뭘까요?
- 가족의 의미로 오리가족을 선택했는데, 왜 오리여야 하는지는.
- 개인적 취향이겠죠.
- 자기 전작하고 재료나 이런 거는 공공미술에 대한 것만 한건 아니고 자기 작품 속에서 나온 작품 같고요.
- 작품가는 문제없습니까?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6-1번 작품 'Wind of seoul'입니다.
작가가 해외작가이죠. 의견 개진해 주십시오.
- 샌프란시스코 미션빌딩에 있는 작품과 닮아 있는데요, 서울의 이미지를 데이터링해서 쓰는 건데 작품 자체에서는 인상적이고 좋은 공공미술작품으로 평가를 받을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이게 액수가 칠억육천이고요, 외국인 작가인데요.
- 창작비 말고 하드웨어가 포함되어 있고, 32미터나 되는데요
- 비싼건 아닌거 같아요.
- 비싸지만 아주 근거가 없는 건 아니고요.
- 비용을 검토해봐야 하는게, 이것을 만들 때 이 비용이 실질적으로 들었는지 아무도 검토하지 않잖아요.
- 이렇게 액수가 큰 작품이 외국작가인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금액이면 우리나라로 치면 7명 정도가 들어갑니다. 이걸 조금 고려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저도 조금 염려가 되고요, 투자를 많이 해서 좋은 작품을 설치하겠다는 건데, 이정도 투자할 필요가 있나, 조명문제 외부자연광 차단이 필요하고요, 주변 설치물들이 다 들어왔는데 실내에, 이게 좀 우려스럽습니다.
- 다른 나라에서도 자연광이 차단이 안된 상태로 그냥 설치하는데, 왜냐하면 차단되면 답답하고, 밤중에 볼 때는 쳐다보고 서있게 됩니다.
- 거기는 다 배려해서 여러 가지를 맞췄을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된 데가 거의 없습니다. 건축주가 작품 이외의 다른 용도로 관여하면 안된다.
- 건축주 입장에서는 강력한 한방, 이것이 굉장히 맘에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 이게 상영시간이 설정되어 있나요?
- 이것은 계속 플로 되는 것 같고요, 그냥 영상물이 아니라 서울의 바람정보 같은 것을 실시간으로 받아서 뿌려주는

것이라서, 계속 상영될 것 같습니다.

- 이게 한국에서 제작하는 것인가요?
- 운송비가 있고요, 하드웨어 가져오는 비용은 아닌거 같거든요.
- 이런 작품은 복사가 가능하고, 오로지 여기에만 있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다음 작품도 보시면 국내작가가 아니고 외국 작가이고요.
-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회사예요.
- 두 번째 작품은 3억 5천짜리거든요.
- 두 개를 같이 보면, 가격을 떠나서는 첫 번째 작품은 좋아 보이지만, 두 번째 작품은 약간 평이해 보이고요, 외국작가를 비싸게 주는 경향은 건축이나 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그 것 때문에 안된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 이게 어쩌다 한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빈도가 자주 들어오는 것이다 보니,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 작품을 갖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가격을 적정하게 산정해야 한다. 가격이 싸서 못오겠다고 하면 오지 말라고 해야죠.
- 시카고의 상징인 아니쉬카푸어가 미국인이 아니지만 상징이 되듯이, 이런 작품을 설치하면 주변이 자극이 되어서 작가들의 수준도 높아지게 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 사람이 많이 알려지고, 선도적인 작가도 아닌데, 이정도 가격이면 더 A급 작가의 작품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 저는 두 번째 작가 작품도, 아시는 분들이 보면 이게 특별히 대단하고 예술성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격이 과다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 근데 우리나라 작가들이 못하는지 안하는지 없잖아요.
- 이 작품은 크기가 있고, 가격이 과다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 미디어 작품의 엘이디는 꼭 수입을 해야 되는 건가요?
- 각자 판단하시고, 너무 가격이 높다고 생각하시니 나중에 다시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6-2번 작품 'Mirror Branch'입니다.
- 가격이 그렇게 과다하진 않으니까 작가적 판단으로 말기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 우리도 할 수 있는 작품이라면 굳이 외국작품을 수입해야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 7번 작품 'Grand Tree'입니다. 의견들 주십시오.
- 과잉된 주제해석이 부자연스러운 연출을 가져옴, 의견 적절할 것 같습니다.
- 작품이 공공미술로 가면서 대중의 미의식을 너무 아래로 잡아서, 지나친 친절함이 작품의 상상력을 없애는 것 같아요.
- 전체가 다 주물이죠? 재료나 이런 부분은 튼튼해 보여요.
- 의견이 갈리니 사전검토의견을 참조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 8번 작품 '추상동사 4분의 4박자'입니다.
- 조형성 자체만으로는 무난하고 흥미로는 지점이 있는데, 작가의 원래 작품에 비해 공공적 고민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 곡선부분이 연출이 다 되나요.
- 형태감은 좋은거 같아요.
- 우리나라에서도 공공미술 개념 도입이후 많은 고민을 했고, 오래전부터 끌고 왔었던 사람이고, 아파트에 하려다 보니 본인 작품을 끌고가지 못해서, 음악과의 관련이 깊어서 요새 조형어법과 맞춘 것 같습니다.
- 이 작품 자체로만 보면 이런 형태 많지 않나요?
- 이런 조형적 요소로는 유사한 작품은 많은데, 확실하게 4분의 4박자다 라고 명시한 작품은 없었고요. 이 작가가 대중음악을 주제로 한 작품을 해왔기 때문에 나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 작품가나 장소를 감안해서 작가가 고려한 것 같습니다.
-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9번 '봄의 환상곡'입니다.
- 아파트 주거공간에 들어가는 작품인데 익히 봐왔던 조형작품 같습니다. 한번 판단해 주십시오. 사전검토의견으로는 조각적 아우라 부족, 애매한 조형성, 상투적 주제, 예술성 부족 등이 있습니다.
- 그동안 한 것과 많이 다르네요.
- 넘어가겠습니다.

- 10번 작품 '생성-청송'입니다. 강서구 마곡지구입니다.
- 전에 여러 차례 나온 작품인 것 같고요. 무난하다, 유사작품이 있다라는 의견 있었습니다.
- 이런 작품이 너무 많지 않나요?
- 이전 그나마 볼륨 있고 괜찮아 보이기도 합니다.
- 측면을 한번 봐주세요.
- 장소하고 어울리나요?
- 측면에서는 조금 아쉽습니다.
- 18페이지 보면 실물 소나무가 더 나올 것 같습니다.
- 이것은 오히려 소나무 옆에 놓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 여기 장소에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장소에 맥락 없이 소나무라는 것만으로 한국성을 보장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 그러면 사전의견도 갈리는 편이니까 각자 판단하십시오.

- 11번 작품 'Variation of Cube'입니다. 재심 작품입니다.
- 사전의견으로는 평이하다, 조형성 부족, 작가적 고민 부족하다.
- 유사작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 근데 그나마 해운 작품보다는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 형태상으로 봤을 때 죄대 없이 그냥 올라왔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 작품이 얇아서 건드릴 수 있어서 보호장치로서 죄대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 어린이 놀이터 바로 옆이에요.
- 그래도 사각에 대한 조형적 해석이 필요하지 않나요?
- 어린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이정도가 고민인 것 같아요.
- 주제성, 유사작업이 많다. 조형표현이 새롭지 않다라는 세 가지 정도 지적이 있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 12번 작품 ‘상생의 울림’입니다. 말씀 주십시오. 3차 심의 주요.
- 2차 심의 때 아슬아슬하게 떨어졌고요.
- 같은 작가입니다.
- 그때 좋다고 했는데.
- 지금으로 보면 2차가 나는데요.
- 저는 이것도 좋아요. 이 안에 구성원들이 심혈을 기울였다고 봐요
- 이거 돌리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해봐서 알아요. 그림처럼 맞추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두 개의 조합이 원만하게 결합이 되는 것 같지 않아 보여요.
- 바깥쪽 동심원은 어때요?
-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 다들 의견이 나쁘다는 것 보다는 적당하다가 많은데요.
- 매력적인 부분도 있고 아쉬운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 넘어가겠습니다.

- 13번 작품 ‘발아’입니다. 재심작품이거든요.
- 작품내용은 멋있네요. 노자 이야기잖아요.

- 많이 본 것 같긴 한데, 공공조형으로 자연스러우면서도 새롭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 평소 작품의 연장선으로 보아 좋았는데요, 놓여지는 위치가 비슷한 석가상이 가운데 버티고 있어서 잘 어울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전 아주 현대적인 공간이나 잔디밭 같은 곳이 어울릴 것 같고요. 장소가 좀 아쉽습니다.
- 명판은 맘에 듭니다. 전형적인 화강석이 아니라.
- 의자에다가 새긴 거네요, 작품 자체가 의자가 되는데 의자에 새긴 것이고요, 이전 정말 신선하네요.
- 저는 이 정도면 굉장히 좋다고 봐요, 지적사항 가운데 그냥 돌덩어리 같다가 있지만, 돌덩어리와 돌덩어리를 판 것이 같이 있어도 어울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넓은 공간에 잘 어울린다고 봅니다.
- 돌이랑 나무를 싹 치우고, 잔디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14번 작품 ‘통일-부부’입니다. 3차입니다.
- 이 작품이 대전에서 전시를 했었던 세트가 있습니다. 하나가 세트였는데 그중에 다문화를 지난번에 냈는데 그게 떨어져서 이번에 남북을 낸 겁니다.
- 인체를 이만큼 하는 작가가 별로 없는데요. 이전 완전히 획기적인 작품인데요.
- 저는 우선 이 작가의 태도에서 보면, 진정성으로 계속 작업을 하고 있고요, 내용을 보면 이 동네에서 태어났고, 봉사도 하고 있고 등 지속적인 관계를 하면서 사회적 얘기를 들어갔다는 것이 진정성이 있어 보입니다.
- 그전에는 형상적인 것이 강하게 왔는데, 요즘은 개념적인 부분이 같이 되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 작품은 좋아 보입니다.
- 이 사람 작품이 내용이 강화되면서, 형상성은 조금 약해진 면이

있어요, 그게 좀 아이러니 해요.

- 다른 의견인데요, 작품성이나 작가로서의 독심 이런 거랑은 별도로 이게 길 중앙에 놓여있기에는 별로 호감이 안가는 면이 있어요, 작품이라고 하면 감동을 자극하고 호감이 가야하는데 이걸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저는 형태의 독창적 왜곡만으로도 이미 시선을 끌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 작품성을 떠나서, 과연 이게 여기 장소랑 어울리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 18페이지 보면, 전시했던 작품을 여기에 새로이 설치하는 것인데요, 이 현장하고 이게 어울리는지 뭔지 모르게 좀 어색하고 우울해 보이지 않나요?
- 여기가 공동주택이 아니고 오피스였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입장을 바꿔서 우리집 앞에 있다고 생각하면 매일 아침 저녁으로 보기에는 얘기가 달라지고 부담스러워질 것 같습니다.
- 다문화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 장소에서 하는 것이 더 부담스러워 보입니다.
- 저는 그 동네에 동질감을 느끼면서 동떨어지지 않는 주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조형어법으로 푼 것이야 말고 이 장소에 어울릴 것 같습니다. 리얼리티 작업은 리얼리티로 봐 주어야지, 환타지나 다른 것들이 개입되면 더 이상해 질수 있다고 봅니다.
-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15번 작품 'VISION SPACE'입니다.
4심 작품입니다. 같은 작가죠?
- 세 번째 것이 아슬아슬하게 떨어졌어요.
- 세 번째 것이 쥘 나아보이네요
- 저는 괜찮아 보입니다.
- 이걸 각자 판단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16번 작품 '공존'입니다. 재심입니다.
- 이 기법이 굉장히 복잡한 것 같고, 공력이 장난 아닌 것 같습니다.
- 이 작업은 우리가 어린시절에 크레파스 여러겹 칠해서 깎아내는 듯한 그런 작업 같아요.
- 어떤 기법을 쓰던 이미지 자체가 너무 상투적이고, 서울의 이미지를 학을 너무 평면적으로.
- 차라리 초현실로 했으면 괜찮을 것 같고요.
- 기존에 했던 작품들은 괜찮아요. 인공과 자연의 이미지가 딱 떨어져서 박히는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키치스럽고, 일부러 여행 카드 같은데 나온 그렇게 하는 작업이에요.
- 이 작품 자체에서 다른 상상력을 자극하지 못한 것 같아요.
- 도시 한복판에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학이 날아가는게 또 이해가 되긴 하네요.
- 어쨌든 이 이미지 자체는 식상하다, 전작에 비해서 긴장감이 떨어져 보입니다.
- 각자 판단하시구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7-1번 작품 '해피트리'입니다.
- 이 작품도 재심이구요. 컴퓨터로 렌더링을 해서 이런 거죠.
- 이런 작품들이 문제라고 보는데요.
- 이 사람은 오리지널리티도 없어요.
- 지난번에는 석가탄신일 기념이었던거 같고, 바뀐 거는 크리스마스 트리로 한거 같고요.
- 26페이지 작가경력을 보시면 프로페셔널리티가 없어요.
- 대부분 건축주가 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하다 보니 공공조형물이 나빠진 경향도 있습니다.
- 건축주의 수준이 정말 중요합니다. 절대적이라고 봅니다.

○○○ 다음 작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17-2번 작품 '장생도'입니다.

3심이고요. 벽화로 계속 같은 형식으로.

○○○ 건축주의 의지로 장생도를.

○○○ 설치도 영 이상한 것 같습니다.

○○○ 상투적입니다.

○○○ 구성도 너무 허술한 듯합니다.

○○○ 눈에 확 띄지 않고 그냥 그냥.

○○○ 눈에 띄지를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 사전의견 참조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 18-1번 작품 '환영-꽃밭에서'입니다. 두 작품이구요.

재심입니다.

○○○ 놀이시설물 업체에서 한 것 같습니다.

○○○ 예술작품이라기 보다는 환경 조형물에 그친 감이 있습니다.

시설물 업체에서 제작한 조형물 같습니다.

○○○ 어린이들이 보면 너무 무서울 것 같고요, 식인 식물인 것처럼요.

○○○ 넘어가겠습니다.

○○○ 18-2번 작품 '환희'입니다.

○○○ 이건 어떻게 한건가요?

○○○ 직접 그리는 거죠

○○○ 테두리를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작품을 진짜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듯합니다.

○○○ 실제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는 거고요, 문제는 작품인데, 백화점에 가면 이런 작품 많은 것 같고요.

○○○ 한때 잘 나가던 작가인데 이상해진 것 같아요.

○○○ 넘어가겠습니다.

- 19-1번 작품 '직소가는 길'입니다. 재심이구요. 회화 세 작품 들어 와있습니다. 기억나시죠.
- 이 건물주가 한사람한테 1층 2층 3층을 다 준거 같습니다.
- 근데 왜 본인 작품 안에서 퀄리티가 차이가 나죠?
- 형식이 다양하니까.
- 1층 로비는 괜찮은데요, 2,3층은 공공성이 있는 장소로 봐야 되는지 그게 좀 그래요, 안으로 다 가지고 들어가면 사실 공공미술 필요 없죠. 자기들이 사서 넣으면 되죠.
- 이걸 복도니까.
- 공공장소를 어디까지 보느냐가 문제이고요.
- 지난번에 관람시청 거리가 너무 짧아서 부결되었습니다.
- 상가 등이 밀집한 공간에 이런 회화 작품들이 있어야 하는지라는 사유가 있었고요. 이 공간에는 이정도면 되지 않느냐 싶습니다.
- 마곡지구가 여러 차례 들어왔는데 상업건물이다 보니까 주변에 설치공간이 마땅치가 않아서 건물내부로 작품들이 들어갔다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 이 건물에 이 작품을 다 넣었을까하는 생각해보니 1차 심의 때 두 작품이 나왔는데 하나만 됐는데, 하나 된 게 이분의 작품이어서 건물주가 생각하기에 이분이 하면 되나보다 싶어서 이분 작품으로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저는 이 작품은 좋아 보입니다.

- 19-2번 작품 '산 너머 고향'입니다.
- 1차 심의 때 왼쪽 벽에 있던 작품과 유사합니다. 이야기식의 그림이 한 건물 안에 두 가지 다 들어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 19-3번 작품 '산바람 불어'입니다.
- 작품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품이 너무 커요.
- 애매하네요.
- 이것도 각자 판단하시죠.

- 20번 작품 '광복회관'입니다. 작가가 바뀌었구요.
- 이게 콜라보 한건가요?
- 둘 다 회화하는 사람이죠.
- 이 광복회관이 해석할 수 있는 최선이 나온게 아닌가 싶습니다.
- 여기서 조금 더 가면 그쪽에서도 수용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고요.
- 이게 자료 면에서 데이터는 하나를 가지고 만들고요,
반조각이라고 해야 하나? 정면도 있고 측면도 있고 해야 하는데
자료자체가 미비합니다. 제일 중요한 정면에서 렌더링 자료가
없고요, 형상이 신선할 만한 형상은 아니고요, 작품설명 중에
태극기가 작품의 일부라고 하는데 그건 부적절한 것 같고요,
지난번 작품보다는 나은 것 같은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네요.
- 이게 심의도서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이즈가 나와 준다면,
재료를 어떻게 쓰겠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없어요.
- 기본도서가 너무 미비되어 있고요, 형상성에 대해서도 어떻게
이해를 해야할지가 문제입니다만, 지난번거 보다는 좀 낫다는
의견입니다.
- 뒤쪽에 밑에 기둥 비슷하게 점으로 되어 있는건 뭐예요?
- 재료가 나와 있는데, 구체적인 제시가 없습니다.
- 근데 이정도면 16페이지에 시공방법이 있는데 이것으로 되지
않나요?
- 이걸 볼 때 전후좌우도 보고 하지 않습니까.
- 측면도 필요하고, 기본서식에 너무 어긋나 있습니다. 데이터로

해결이 안됩니다.

- 예술성을 논하기 전에 들여다보고 이것을 어떻게 구현하는지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하는데 상제가 없습니다.
- 이것을 왜 두 작가가 해야 되는지도 의문이고요.
- 어떤 연장선상에서 이 작품이 나와야되는지 이해가 되어야 되는데, 알 수가 없습니다. 뭔가 연계점이 있어야 어떤 자료가 부족한 것이구나 하지만, 이 작품의 연관성이 없습니다.
- 시공법이 돌벽에 레이어가 세겹 정도로 붙어있는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접합하는지에 대한 표준 방법만 있고, 바깥에 볼트들이 보이는데 이게 기술의 부족인지 예술적 선택인지.
- 그건 의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 그건 표현기법 중에 하나라고 보여 지는데, 여기가 광복회관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건물인데요. 그러면 잘해갖고 왔어야하는데요.
- 그 부분은 이해하지만, 그렇게 과도하게 요구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측면이 없다고 예측하지 못할 것은 아니고요, 설치방법은 간결하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광복회관이 가질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 우리가 이전에 광복회관에 나왔던 작품의 부결사유를 기억하시나요? 부결사유가 업자 같은 분이 했다는 것이든요, 작품과 연관성, 전문성도 없고해서 배제시켜서 탈락했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고려를 해야 할 것 같고요. 설치방법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또 하나 이 작가의 경력서 상에 이미지 자료라도 줘야 될 거 같은데 제공하지도 않았어요.
- 저는 이 작품의 작품성을 어떻게 보는지도 궁금합니다.
- 바탕과는 안어울려 보입니다.
- 10페이지 보면 실제 완공된 벽이 있는데 그림처럼 진하지는 않습니다.
- 이 작품자체 구상성, 예술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런 작품은 보통 가시거리가 중요한데, 현 상황은 거리는 충분해 보이고요.
- 이 작품이 공공미술품으로 설치가 되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여부도 판단을 해주시고요, 지난번에는 상업 업자 같은 사람이 이상한 형태로 들어왔기 때문에 3차까지 떨어진 겁니다.
- 3d 제작에 대한 허와 실을 계속 얘기하는데요. 정면도면만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분명히 심의도서를 낼 때는 전후좌우를 내게 되어 있잖아요. 안냈다구요.
- 신청도서가 부실한건 사실입니다. 작가 자료도 없고요.
- 자료가 미비한 것은 확실하지만, 증견작가로 교체했었고, 일단 노력은 했어요. 작품에 대한 의견이 있어야 할 거 같아요.
- 어떤 작품을 평가 할 때는 그 자료를 가지고 작품을 읽어내는 것인데요, 완벽한 자료를 넣지 않은 상태에서 평가하는 것도 무리가 있고, 불성실한 자료인 것 같습니다.
- 꽃이 무궁화인거죠.
- 의견들을 모아주시면, 자료가 미비 되었다는 것을 명시하고, 이 자료를 어떤 식으로 보충을 해야 하는지 명기하는 걸 전제로 각자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제가 왜 무궁화인지를 말하나하면 제가 지금 무궁화를 키우고 있거든요. 무궁화 꽃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미흡합니다.
- 이 작품이 어디서 본 것 같기도 합니다.
- 두 작가가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설명도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사실 이 도면에 표현되는 것은 사이즈와 재료 등에 대한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나중에 조명이 어떻게 되는지도, 저녁에 표시되는 것도 모르겠고, 이것은 미술작품이라기 보다는 간판업체가 붙여놓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 작품설명에 보면 마지막 문단 보면 옆에서 휘날리는 태극기도

작품의 일부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작품설명으로 보기 어렵다고 느낍니다.

○○○ 자료가 미비한 점을 참조해서서 판단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 21번 작품 '자라나는 빛'입니다.

○○○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작품을 조금 변형시키겠다는 것이고요.

○○○ 전 작품이 다른 작품과 유사성이 있어서 들어온 것인데요.

○○○ 수정된 게 더 별투인거 같아요.

○○○ 자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서 올라온 것 같은데, 애매하네요.

○○○ 산만해 보이고, 작품설명도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 위험성 제거에 대해 우리한테 신청한 것인데요.

○○○ 여기서 부결된다면 또 다른 작품을 신청할지는 모르는 상황인 겁니다.

○○○ 12페이지를 보면 변경심의 사유가 나와 있어요. 변호사 의견들이 있고, 작가측에서 좀 더 완벽하게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일 뿐이고요. 변경에 대한 것을 인정을 해주지 안해주지를. 저희가 판단해서 결정해야할 거 같습니다.

○○○ 저번 작품은 우리 심의에서 통과한 작품이고요

○○○ 통과된 작품이 위작시비에 걸렸다고 하면 어떻게 될지.

○○○ 표절시비에 대한 얘기는 이 작품 말고도 이제까지 계속 얘기를 해왔었고요, 지금 이것은 변호사가 표절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판사가 내린결정은 아니지요. 어쨌든 표절에 대한 의혹을 받았으면, 작품을 아예 바꿨어야죠.

○○○ 저희한테 미루려는 의도는 있는 것 같은데.

○○○ 저희가 작품으로만 판단하는 게 좋을거 같아요. 점수로 매겨주시면 됩니다.

<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발표>

- 오늘 30개 작품 중 안건 3, 5, 6-2, 8, 12, 13, 14, 16, 19-1번 안건이 승인되고, 나머지는 부결되었습니다.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 결과에 이의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8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